◈ Libraries and Educational Planning.

圖書館과 敎育計劃

D. J. Foskett 저
(London大學校 敎育硏究所)
金 仁 遠 譯
(韓國圖書館協會 企劃部長)

이 글은 佛蘭西 파리에 있는 國際敎育計劃硏究所가 每年 主管하는 敎育計劃家 訓練課程에 包含된 圖書館計劃 세미나에서 討議된 內容과 計劃業務 및 遂行方法 등을 檢討한 글을 飜譯한 것이다.

◈譯 者 註◈

敎育界에서 오늘 날의 計劃이라는 槪念이 제대로 使用되기始作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며 다른 槪念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政治 및 經濟와 같은 보다 成熟하고 確實하게 樹立된 先行槪念들이 연결된 결과로서 발전한 것이다. 어떤 政治思想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들의 個人的 哲學이 어떠하든지간에 20세기에 있어서 국가의 中央 및 地方政府들은 그 국민들이 바라고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예컨데 교육제도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서 상호협조해야 만 한다는 것을 明確하게 인식케 되었다. 비록 영국의 public school처럼 個人의 힘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고 容認된 處身法을 習得시켰다 하드래도 이것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제도의 발전이 妨害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발전을 引導하였던 것이다. 日常生活이 점차 복잡화되어 가고 科學 및 技術에 대한 우리의 依存度가 증가됨으로 말미아마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국가에 의한 體系的 교육발전의 要求가 대두되었다. 同時에 매스메디아(Mass Media)를 通해서 一般大衆은 이와 같은 向上된 기술에 의하여 그들의 生活 운영을 向上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부유한 소수자들의 特權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認識케 되었다. 經濟的인 動機는 매우 강한 것이지마는 그 동기는 정치적 인식에 依해 指導되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의 보급에 의해서 이러한 지도가 가능케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 말하면 이것은 Pestalozzi, Makarenko, Montessori, John Dewey와 같은 실존철학자들의 영향을 뜻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육이란 것이 Lockean의 전통적 이론처럼 선생이 그의 지식을 白紙狀態인 어린이의 머리에 새겨 넣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계획의 최선의 方法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完全히 合致된 見解를 기대하는 것은 勿論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드래도 상당히 널리 묵인되어온 견해에 의하면 자유, 평등, 교육,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수준까지의 교육이 實施하는 政治的인 觀點에 대해서는 經濟的인 正當性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사람들은 이것을 長期的 目標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몇을 제외한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數値的으로 반박할 餘地없는 論理를 展開하지 않고는 만족치 못한다.

교육에 관한 한 이것은 어려운 얘기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한 교육의 가치를 딸라로 말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컨데 변호사가 현재 벌고 있는 돈과 만약 그가 「클럭」이 되었을 경우에 받을 돈과의 差額을 계산해 내기까지 하지마는 이것은 분명 制限된 가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된 사람도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첫째 사람이 成就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성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며 따라서 국가가 교육계획에 關與해야 하는 것은 不可避하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의사를 代表한다고 할 때에 좀 더 나은 生活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계획에 의해 실현시킨다 할 때에 이보다 더 당연한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기술시대에 있어서 국제협조란 政治的으로 要求되고 經濟的으로는 有益한 것인 까닭에 적절한 政府間 機構에 의해서 그 原理와 기술을 연구함이 타당하고 교육의 경우에는 UNESCO가 바로 그 연구기구이다.

나아가는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만 유네스코는 이 분야에 지도적 역활을 담당해 왔고 1963년에 자치단체로서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를 파리에 設立하였다. 창립된지 몇년 만에 IIEP는 그 연구의 質이나 範圍에 있어서 높은 評判을 획득하였으며 교육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서적들을 매우 많이 發刊하였다 이곳에서 發行한 특수연구서적들은 比較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게 特別히 가치있는 것들이다.

IIEP 사업중에 중요한 것은 매년 가을에 시작되는 교육기획자들을 위한 年間 훈련과정이다. 1967년에 UNESCO DLA(Documentation, Libraries and Archives)의 책임자 C.V. Penna 氏는 교육계획자들이 도서관분야의 그들의 任務를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서관계획에 관한 세미나를 교육계획훈련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建議했다. Penna氏는 그전에 이미 이러한 신규적 作業을 시작하여 特히 中央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유네스코 세미나를 지도하고 장려하였으며 1967년 3—4月號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에 이 문제의 體系的인 檢討를 최초로 내놓았다. 이것은 그후 영국 교육과학省의 P.H. Sewell과 Brussel 王室도서관의 司書이자 IFLA의 회장인 H.Liebaers에 의해서 수정, 增補되었으며 이들의 著書가 Unesco manuals for libraries 제17號로서 발간되었다. IIEP소장은 Penna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1969년 6월에 교육계획훈련과정 말기에 도서관 계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P.H. Sewell 氏가 지도하였는데 매우 成功的이어서 1970년 두번째 세미나 개최가 허락되어 본인이 이를 실시했었다.

세미나형식은 첫번째 Sewell氏의 것을 따랐다. 즉 도서관업무의 性格과 계획에 관한 序論的 강의, 실습 및 토론의 순서였다. 1970년 세미나의 강의는 개론에 立脚하여 한 국가의 도서관, 정보 및 文書보관업무는 교육제도, 경제 및 산업제도, 과학 및 문화제도 같은 것들과 관련하여 통합된 個體로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Main system內에는 여러 형태의 sub-system이 있다. 즉 기구면에서 볼 때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 및 특수도서관, 과학정보기관도서실 등이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文書공급, 분류 및 목록작성, 발췌, 컴퓨터 처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各己의 內在的 論理와 연구대상으로서의 統合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따로 分離해서 국가전체와 聯關시킬 수는 없다. 그 어느 하나가 발전한다든가 발전치 못하는 것은 곧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놀랍도록 훌륭한 컴퓨터에 의한 索引제도도 색인될 文書를 提供해주는 도서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 UNESCO의 DLA system 이 하나의 統合된 system, 즉 기록된 知識의 획득, 조직적 정돈 및 보급에 관한 확정된 목표에 응하기 위해 한 국가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설립된 公式 system으로서 論議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전문적 문헌에서 철저히 토의되어온 documents와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통찰력(insight)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통찰력이란 어떤 분야의 예술가건 그가 人生에 대해서 論할 때 發揮하는 바로 그러한 통찰력이다. 그것은 DLA system은 과학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조금도 차이없는 것을 예술가에게도 제공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세미나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1차에서는 (가) 도서관계획의 史的考察 (나) 도서관 및 Documentation Service의 기능, 또 이들이 국가경제, 교육계획, 사회의 文化生活에 대해 담당하는 役割의 分析 (다) 도서관 및 Documentation Service의 구조 (라) 도서관 및 documentation의 조직 및 관리 등의 순서였고 제2차에서는 (가) 국가계획 (나) 국가기관을 필요로 하는 국제계획 (다) 예산

첫날, 마지막에 실습의 성격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1969년도에는 각 참석자는 Guatemala에서 실행된 실제 계획에 立脚한 一連의 질문에 해답을 하였지마는 1970년에는 다른 主題를 擇하였다. 即 가상 개발도상국의 DLA system계획이었다. 참석자중의 한 사람인 Dr. McCabe의 論文과 library및 documentation service의 예산에 관해 特別한 연구를 해온 IIEP의 職員인 Hallak氏의 出席으로 세미나 終盤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인구는 2천만에서 5년후 2천5백만으로 GNP는 13억弗에서 16억弗로 14萬以上 成人의 국문해득자는 25%에서 30%로 교육비는 GNP의 5%에서 6%로 각각 증가예상되며 연구개발비는 0.5%이다. 공중위생, 수송 및 의약에 애로가 있으며 1960년에 설립된 국립도서관은 불충분한 장서 및 직원에다가 낡은 빌딩에 수용되어 있으며 1960년과 1965년에 설립된 두개의 大學이 있으며 이들은 적당하고 적절한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不足한 職員을 갖고 있다. 공공도서관도 없으며 학교에는 수집된 장서가 메우 적다. 정부의 의도는 10%의 도서 Service수준에 到達하려는 것이다.」로되어 있었다.

참석자들은 세구룹으로 나뉘어 첫째 구룹은 國立 및 大學도서관, 두째 구룹은 학교 및 공공도서관 셋째는 과학기술도서관 및 documentation center에 대해 각기 大體的 계획을 作成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分野에 대해서는 序論 강의에서 取扱되었다. 즉 그들의 목표독서인원, 장서의 종류, 職員의 訓練 및 配置, 相互간의 관계등이 取扱되었다. 그들의 편성은 각자의 興味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언어나 국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중 한 구룹만이 몇가지 理由때문에 統一된 토의를 진행치 못하였다.

교육인구, 기업의 성격(화학이나 공학이냐의)과 같은 몇가지 사항은 일부로 제공치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육계획가의 立場에서 그들은 엄격하게 도서관인들

의 관심분야에서 推定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고, 두째로 기업의 성격은 documention service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不利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학교 및 공공도서관 계획을 맡았던 그룹은 그들의 目標人口를 계산해 냈으나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 假想자료를 제공해야만 했었다.

두째날 마지막에 가서 계획 및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첫째,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매우 짧은 시간에 作成되고 토의에 자료가 될 보고서 작성의 필요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두째로는 13일째 오전을 토의로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생각대로 되어 셋째날 오전은 매우 활발한 토의를 보낼 수 있었다.

이 그룹들 간에는 어느 程度의 交互作用이 있었다. 즉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원들 중에서 다소의 과학자들이 대학구릇을 떠나 과학기술도서관 및 documentation 분과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 그룹에 의한 어떤 推定들은 他그룹에 의해 반박되었고 따라서 討議에서 解決되었다. 이 실습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종류의 정보기구를 교육계획에 통합시킬 必要性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매우 상이한 讀者數를 가진 정보기구를 국가적 수준으로 統合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교육계획과는 반대로 도서관에 관해서는 진짜의 전혀 알지 못하던 난관이 있음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비록「output budgeting」이 고무적이고도 새로운 어프로우취이긴 하지만 도서관의 목적을 수량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얘기할 때 보다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초등, 중등 및 대학교육 인원수가 교육목표를 設定하고 생산성에 의해 교육의 質을 評價하는 꽤 만족스런 尺度가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反面에 도서관에 관해서는 이러한 간단한 尺度가 存在치 않는다. 도서의 수, 독자수, 貸出도서수를 output(生産)으로써 측정한다면 도서업무의 실제적 가치를 숟혀 그릇되게 表示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그들의 課題를 깊이 생각해 보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도서관 및 documentation 제도에 관한 그들의 견해가 상당한 進步를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미나의 목표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全般的으로 達成된 것이다. IIEP의 所長 Raymond Poignant氏가 참석했던 최종 Session에서 참석자들은 問題에 대해서 充分한 把握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것은 한편 만족과 安堵의 根源이기도했다. 세미나가 시작될 때에는 도서관 계획이라는 생소한 과목이 과정말기에, 즉 보고서 작성이나 귀국준비등으로 한창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 소개되는데 대한 노여움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물론 힘드는 훈련과정을 취급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일단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과목,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과목으로 다시 책을 펴야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극복키 어려운 일이었다. 이 어려움이 극복은 되었지마는 만약 Seminar를 훈련과정말기가 아니고 좀 더 일찍 진행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實習의 內容도 더욱 좋아질 수 있었을 것이었다. 또 가상적인 case는 非現實感을 준다는 主張도 있었으나 실제적인 case를 다루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많은, 혹은 더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었으리라는데 참석자들의 意見이 一致하였다. Seminar는 別途의 연습으로 하지 말고 교육계획에 관한 연습의 일부분으로서 取扱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석자들이 겪는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도서 및 documentation system이 아무때나 우연한 기회에 해도 좋은 마치 군살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제도의 기본적 부분이라는 개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Session에서 IIEP所長 Poignant氏는 국가生活 즉 경제적 福利, 교육제도 및 文化生活에 있어서의 도서 및 documentation system의 重要性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세미나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生覺에 同調하였으며 도서관계획에 관한 실습을 교육계획 훈련과정 中途에서 實施하는 문제를 考慮할 것도 快히 승락하였다. 따라서 도서관계획이란 것이 교육자들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別個의 活動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생각처럼 도서관이란 그 중요성이 크지않거나 심지어는 하나의 奢侈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明白하게 할 것이다.

세미나에서 本人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세미나는 모든 參席者들에 대해서 도서관 및 documentation system의 계획에 관한 思考를 자극시키는 우수한 수단이라는 것.

2. 세미나는 교육행정관들에 대해서 도서관계획에 관한 건전한 紹介를 매우 意味있는 方式으로 提供함으로써 교육행정 및 도서관행정에 다같이 利得을 준다는 것.

3. 학교, 대학 및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특수도서관 및 정보기구를 取扱함으로써 참석자들은 국가재산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국내 및 국제적 兩面으로서 고찰할 수 있었다는 것.

4. 세미나 참석자들은 그들이 도서관 및 documentation system에 관해 배운 바를 그들 동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으리라는 것.

5. 이 세미나는 도서관발전을 위한 다른 유네스코계획도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 등이었다.

유네스코의 DLA部가 도서관계획 원칙을 수립하는 그의 役割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IIEP와의 協調를 통해 훌륭한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곧 두가지로 說明될 수가 있는데 첫째, 이미 실시된 兩次세미나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교육계획가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관이 行하는 役割의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및 공공도서관은 기능적 학식(functional literacy)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그들의 장서의 선정을 敎育과 같은 社會利益이라는 일반적 想念에 뿐이 아니고 사용자의 개인적 必要에다 結附시킬 수 있는 長點을 가진 공공도서관이 더욱 그러하다. 대학 도서관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훌륭한 도서관 없이 대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외국의 훌륭한 학문 및 도서관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았기 때문이다. 기술도서관 및 정보기구들은 산업, 농업 및 의학 등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따라서 국가의 GNP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리하여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교육제도를 위해 지출된 경비를 메꾸어 주는 것이다.

두째로, IIEP와의 協調는 도서관인들에게 利益을 가져다 준다. cost-benefit(經費 및 利得) 분석과 같은 계획기술은 도서관 운영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지마는 그 방법은 希望的이지 못하고 염려스러운 점까지 있다. 쉽사리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生産에 근거를 산업으로 부터 무조건 기술을 도입해다가 도서분야에 적용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도서분야에서는 利得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생각속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극히 制限된 범위내에서만 측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反面에 도서관계획을 以前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資源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技術을 배격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난점을 겪고 있는 교육계획가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히 배워야 되는 것이다. 1970년도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해 有益했던 점은 제쳐놓더라도 본인에게 있어서도 기획방법론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識見을 얻을 수 있었던 利點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인들도 이러한 종류의 교육을 필요로 할 것임을 本人은 確信하는 바이다. 도서관행정과 업무의 대부분은 分析的이라기보다는 記述的인 까닭에 비록 DLA system을 국가계획을 形成하는 보다 큰 system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는 그 始初라고 생각하게 되지마는 도서관행정과 업무가 반드시 여기서부터만 시작되지 않는다. 도서관 행정과 업무를 成功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정책을 인식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特定 system에 적합하고 또 다른 system에서 사용되는 것들과 符合될 수 있는 기술과 方法을 채택할 줄 알아야 한다. 유네스코는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과 原則들에 對해 關心을 促求함으로써 이미 貴重한 공헌을 남겼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상세하고 깊은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成長의 歡喜

KLA 코너

小學校에 入學하던 날, 校長先生님께서 記念으로 감나무 한 포기씩을 주셨다. 집에 가져다 뜰에 심었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돌보았다. 움이 트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3年은 되어야 감이 연다고들었는데 우리 집은 그전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이사간 후로는 옛날 우리집에 가 보지를 못했다.

이제 내 나이는 마흔과 쉰의 중간에 이르렀다. 이 나이가 돼서야 감나무를 入學선물로 주신 校長先生님의 뜻을 헤아릴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 분은 우리 어린 마음 속에 成長의 歡喜를 심어서 우리들의 心理特性을 生産내지 發展指向的으로 길러보고자 하셨던 것 같다.

個人이고 國民이고 간에 成長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個人이나 國家에 대하여서는 큰 發展을 期待할 수가 없다. 산을 발가숭이로 만들어 두었던 우리의 過去를 보다 成長의 歡喜을 缺하였던 우리 祖上들이었기에 生産的일 수도 發展的일 수도 없었던 것이며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는 수모를 당하였던 것이다.

成長의 歡喜가 없는 個人이나 集團일수록 自身이나 集團의 精力을 成長을 위하여 쏟으려 하지 않고대신 남을 혹은 남의 集團을 끌어 내림으로써 自身이나 所屬集團을 優位에 올려두려고 한다. 지난 날의 우리 黨爭史를 보라. 그리고 獵官運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라. 아울러 우리 協會 언저리에는 비슷한 추태가 없는지 보라. 우리 協會는 많은 사람들로써 結成되어 있다. 協會을 育成하는 方法이나 協會의 進路에 대하여 多少의 異見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이어서는 안된다. 人身攻擊이어서는 안된다. 나를 介在시켜서는 안된다. 成長을 사랑하고 그것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부질없는 잠꼬대인 줄 알면서 몇줄 적어 보았다. (DHK)